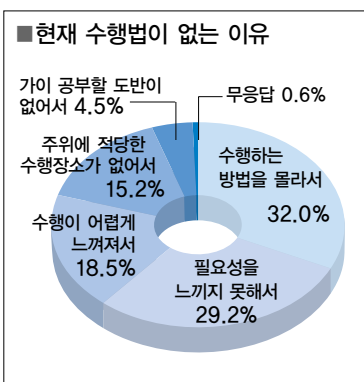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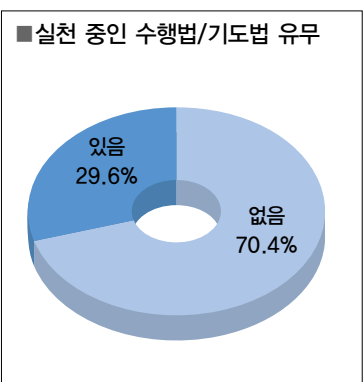


재가불자 70% '수행 NO' 불교, 수행의 종교 맞나?

불교사회연구소, 2013년 대국민 여론 조사 발표

'수행의 종교'라고 자칭하는 불교의 재가자들 10명 중 7명이 수행을 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는 이웃 종교인보다도 수행을 안했다. 이 같은 결과는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의 '2013년 한국의 사회·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정치·사회와 종교를 아우르는 올해 여론조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불자와 타종교인 수행법 현황 분석이다.



타종교보다 수행 안해 '충격' '수행법 몰라 안한다'가 이유
수행자 호흡명상, 염불 선호
간화선 수행자는 4%에 그쳐
대중적 수행법 교육 급선무
차기 총무원장에 바라는 것
국민 절반 '도덕성·청렴성' 사회적 공통 치유 역할 기대

임 교수는 "불교가 수행의 종교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수행을 하지 않는 불자들이 70%에 이르는 것은 현재 수행 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며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빈도가 많을수록 수행을 하는 응답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신자들을 정기적으로 사찰에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 수행 문화의 확산과 직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수행법이 없는 이유가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자가 많다"며 "현재 불교 수행 문화 속에서 수행

문화가 확산 되지 못한 이유는 쉽고 체계적인 수행방법을 보급하지 못했고 수행의 필요성을 신자들에게 못 일깨워 줬다"고 지적했다. 오는 10월 10일 치러지는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해 차기 총무원장의 첫 덕목으로 응답자의 45.6%가 '도덕성과 청렴성'을 꼽았다. 다음으로 '다른 종교나 정부와의 소통(16.3%)' '불교적 수행력(12%)' '종단 쇄신과 결사에 대한 의지력(9.7%)'의 순서로 답했다. 총무원장이라는 소임이 종단 행정수반임에도 '총무원장 능력'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5.4%에 불과했다.

한국불교의 과제도 '불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 증대' (31.6%)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나눔과 봉사 등 사회참여 확대' (27.4%) '사찰재정 투명화와 사찰운영에 사부대중 참여 확대' (17.3%)를 제시했다.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불교계의 역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8%는 '종교는 사회의 일에 개입하지 말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답해 중립을 지킬 것을 권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40년 주석처 조계사와 작별
조계종 원로의원 혜명당 무진장 대종사의 원적을 추모하는 대속야제가 9월 1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렸다.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가해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다. 스님의 법구는 법사로 주석했던 동국대를 거쳐 영결식장이 마련된 범어사로 운구됐다.

조계종 원로의원 무진장 스님 원적

9일 법납 57세, 세수 82세... 13일 범어사서 영결식

사찰, 車 등 일곱가지 없어
'7無' 스님... 청빈의 사표

조계종 원로의원 무진장 스님이 9월 9일 오전 4시30분경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원적했다. 법납 57세, 세수 82세.

1932년 제주에서 태어난 무진장 스님은 1956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0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범어사 불교전문강원을 이수한 스님은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하

고 태국에서 남방불교를 연구하기도 했다. 이후 조계종 2대와 4대 포교원장을 역임하고 2007년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추대됐으며, 2008년에 대종사 품계를 받았다. 2010년에는 서울 조계사 회주로 추대됐다.

사찰, 승용차, 돈, 모자, 목도리, 장갑, 솜옷 등 고가품이 일절 없는 '일곱 가지가 없는 스님'으로 유명한 무진장 스님은 평생 법문을 통한 대중 교화에 힘썼다. 무진장 스님의 장례는 원로회의 장으로 치러졌으며, 출가 본사인 부산 금정총림 범어사와 오랫동안 회

주로 주석했던 서울 종로 조계사에 동산 불교대 분향소가 마련됐다. 평생 포교 원력으로 대중들을 교화했던 스님인 만큼 분향소는 사부대중의 조문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9월 10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 스님, 호법부장 정안 스님, 문화부장 진명 스님 등 교역직 스님과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이 참석했다. 자승 스님은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과 만상좌진 관 스님에게 인사하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9월 12일 조계사에서는 다비식 전날 밤 봉행되는 불교식 추모 의례인 대속야제(大宿夜祭)가 봉행됐다.

이날 대속야제에서는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前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 홍윤식 교수가 스님을 회고했으며 포교원장 지원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 등의 조시 낭송이 이어졌다. 또한 스님과 특별한 인연을 맺어 온 동산불교대학, 조계사 청년회 등의 추모의 시간도 마련됐다. 대속야제 이후 스님의 법구는 조계사를 떠나 영결식장이 마련된 범어사로 이운됐다. 영결식과 다비식은 13일 범어사에서 엄수됐다. 조제는 15일 범어사에서 49재는 10월 27일 조계사에서 봉행된다. <영결식 차주 상보> 신종일·정혜승 기자 추모특집 2, 31면

958호 INDEX

시방세계 2013 나란다 축제 현장을 가다	5	종합 템플스테이 특화프로그램 매뉴얼	3	화엄만다라 봉사단체 무량감로회	16·17
		신행 포교 동대부여교 지역민에게 불교 알려	6		
		학술 문화계 2013년 후기 학위논문 직지사 사천왕상 목서 발견	9		

“총무원장 피선거권 제한은 합헌”

법규위, 법일스님 청구 기각... 원장 선거 예정대로 진행

총무원장 피선거권을 제한한 선거법 제13조 1항이 '중헌 위배'라는 주장에 대해 법규위원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은해사 법일 스님의 위헌 청구는 기각됐으며 조계종 제34

대 총무원장 선거는 예정대로 10월 10일 치러지게 됐다. 앞서 법일 스님은 총무원장 피선거권을 제한한 선거법 제13조 1항은 '중헌위배'라며 법규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중헌 제53조에는 총

무원장의 자격에 대해 '승랍 30년, 연령 50세, 법계 중상급 이상의 비구로 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자격요건은 중범으로 정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이 없다는 게 심판청구의 이유였다. 신종일 기자

법규위원회(위원장 동산)는 9월 12일 제80차 회의를 열어 법일 스님이 제기한 '선거법 제13조 제1항 중헌 위배여부 심판 청구의 건'을 논의했다. 법규위원회는 40여 분의 비공개 토론 끝에 "선거법 제13조 제1항은 중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동산 스님은 "법규위원 다수가 법일 스님의 심판청구에 대해 중헌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내셨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삶은 꿈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룸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르랴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범어·계승·선화의 집대성
-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대행스님의 뜻으로 쓴 금강경(독송용)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쓴 천수경(한글/영어)